



이 슈 리 포 트

2012년 1분기 수출기업체감지수와 수출기업 애로사항

이 재 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

- I. 수출기업체감지수
 - 1.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II. 2012년 1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2. 수출기업 애로사항

요 약

1.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92)보다 상승한 95 기록
- 업황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여 업황개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은 전기 대비 악화되었으나, 수출물량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반적인 업황평가가 전기 대비 상승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원가상승압력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전기(94)보다 하락한 91을 기록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전기(111)보다 상승한 117을 기록하여 원가부담이 확대된 반면,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99에서 100으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5)보다 4포인트 상승한 99를 기록하였으나, 유로존 사태 지속 및 중국의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개선속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2.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2로 전기(99)보다 상승
 - 수출기업은 유로존 위기가 점차 해결국면으로 진입하고 미국의 경기 개선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6로 1분기(101)보다 소폭 상승하여 수출기업은 수출채산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8로서 전기(101)보다 상승하여, 기업들은 점차 세계경기의 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며 수출물량 증가세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3. 수출기업 업황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
 - 수출업황 악화기업 중 69%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84%)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2011년 4분기보다는 회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환율변동이 29%, 가격경쟁력 하락은 24%, 업체간 경쟁심화가 22%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철강 및 비철금속, 석유화학 업체의 경우 수출대상국의 경기 악화 이외에도 30% 이상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업황악화의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불안정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61%), 원화 환율 불안정(59%),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5%)를 꼽고 있음.
 -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 20%, 국내 기업간 경쟁이 1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I

수출기업체감지수

1.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92)보다 상승한 95 기록

○ 업황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여 업황 개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은 전기 대비 악화되었으나, 수출물량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전반적인 업황평가가 전기 대비 상승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원가상승압력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전기(94)보다 하락한 91을 기록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전기(111)보다 상승한 117을 기록하여 원가부담이 확대된 반면,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99에서 100으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 1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전기 대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원화기준)가 소폭 상승한 반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원가 상승폭이 확대됨.

※ 원/달러환율(기간평균) :

1,084('11년 2/4) → 1,084(3/4) → 1,145(4/4) → 1,134('12년 1~2월)

※ 두바이 유가(기간평균, \$/배럴)

105.3('11. 12월) → 109.5('12. 1월) → 115.9('12. 2월) → 122.5('12. 3월 1~16일)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5)보다 4포인트 상승한 99를 기록하였으나, 유로존 사태 지속 및 중국의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개선속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조선 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전기와 동일한 94를 기록, 5분기 연속 기준치 10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1>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110	117	109	102	98	102	97	92	95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8	113	103	94	89	97	89	94	91
수출단가 평가지수	95	112	103	100	109	104	97	99	100
생산원가 평가지수	109	119	115	116	134	123	119	111	117
수출물량 평가지수	111	122	112	104	104	110	101	95	99
수출계약 평가지수	111	122	112	105	103	110	102	94	99
자금사정 평가지수	100	108	106	102	96	99	94	94	94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업황은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정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평가지수는 각각 102, 93로 전기(대기업 88 중소기업 93) 대비 대기업은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은 개선되지 않음.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 94, 중소기업 90을 기록하여 대기업은 소폭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 97을 기록, 전기(대기업100, 중소기업 93)보다 수출물량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98, 중소기업 93을 기록, 전기(94, 95) 대비 대기업의 자금사정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악화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대부분 기준치(100) 하회(석유화학·섬유 산업 제외)

-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플랜트 산업의 경우 전기보다 업황이 개선되었으나 개선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석유화학은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효과로 다소 업황이 개선되었고 조선산업의 경우 93으로 전기(68)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기준치를 하회하여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로 진입하지는 못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지수는 섬유산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플랜트와 자동차 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수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채산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계류 산업이 전기 대비 개선됨.
 - 조선산업의 경우 전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전기보다 악화되었으나 기준치를 상회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플랜트 산업이 전기 대비 크게 개선된 반면, 다른 산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미국, 중국이 개선된 반면, 다른 지역은 소폭 악화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중국이 93로 전기(81)보다 개선되었으나 기준치를 하회하였으며, 미국이 전기보다 8포인트 상승한 103을 기록함.
 - 중남미가 78로 전기(92)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전기보다 소폭 하락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중국지역 수출기업이 소폭 상승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소폭 하락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미국 및 일본 지역의 개선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음.



<표 2>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자금사정 평가지수	
		2011 4/4	2012 1/4	2011 4/4	2012 1/4	2011 4/4	2012 1/4	2011 4/4	2012 1/4
규모별	대 기 업	88	102	93	94	100	105	94	98
	중 소 기 업	93	93	94	90	93	97	95	93
업종별	석 유 화 학	80	101	88	84	83	100	94	94
	철강 및 비철금속	90	96	98	95	105	103	97	98
	전 기 · 전 자	85	89	93	90	85	94	88	89
	기 계 류	97	95	94	93	97	100	97	100
	자동차(부품 포함)	103	98	101	93	107	103	97	97
	조 선	68	93	64	79	64	82	73	79
	섬 유	89	101	89	103	88	99	99	93
	플 랜 트	93	100	107	86	129	100	79	93
지역별	미 국	95	103	98	96	96	106	95	97
	중 국	81	93	85	89	88	96	92	90
	일 본	95	95	101	99	102	106	93	96
	유 로	93	91	91	89	92	99	93	96
	동 남 아	95	92	94	85	94	86	97	94
	중 남 미	92	78	100	83	104	78	104	94

2.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2로 전기(99)보다 상승

- 수출기업은 유로존 위기가 점차 해결국면으로 진입하고 미국의 경기개선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하여 2분기 수출업황이 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6로 1분기(101)보다 소폭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 채산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표 3>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전망지수	110	123	117	113	106	116	108	102	99	112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01	108	111	106	101	107	105	100	101	106
수출단가 전망지수	97	100	105	102	102	109	102	99	99	102
생산원가 전망지수	106	110	110	109	112	125	111	108	110	112
수출물량 전망지수	112	129	121	114	110	124	116	107	101	118
수출계약 전망지수	111	129	121	113	109	123	116	106	102	118
자금사정 전망지수	103	111	110	106	101	106	106	100	98	102

- 최근 원화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도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8로서 전기(101)보다 상승하여, 기업들은 점차 세계경기의 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며 수출물량 증가세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102를 기록 전기(98)보다 상승, 자금사정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120, 109로 개선 전망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에서 대기업이 110을 기록, 104를 기록한 중소기업보다 채산성 개선 전망이 밝음.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전기 대비 16 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수출물량 확대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이 108, 중소기업이 100을 기록, 전기(100, 97)보다 대기업의 자금사정 개선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플랜트, 조선, 전기·전자 산업에서 크게 개선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전기·전자 산업과 섬유산업에서 개선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석유화학 산업은 유가부담으로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함.



- 산업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 대비 20 포인트 가량 상승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조선과 석유화학산업이 전기 대비 하락함.
- 수출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유로존 및 동남아 지역의 수출업황 개선 전망
- 중남미 지역의 업황지수가 하락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전망이 밝지 않음을 나타냄.

<표 4>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2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구 분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자금사정 전망지수	
		2012 1/4	2012 2/4	2012 1/4	2012 2/4	2012 1/4	2012 2/4	2012 1/4	2012 2/4
규모별	대 기 업	100	120	107	110	106	122	100	108
	중 소 기 업	99	109	99	104	99	116	97	100
업종별	석 유 화 학	103	109	104	102	99	118	100	99
	철강및비철금속	97	107	99	104	103	114	101	105
	전 기 · 전 자	95	112	97	108	97	118	96	100
	기 계 류	103	112	107	108	105	121	100	106
	자동차(부품 포함)	99	111	99	104	94	113	98	106
	조 선	82	100	82	82	95	104	100	86
	섬 유	104	119	104	113	102	126	99	99
	플 랜 트	114	143	100	100	129	129	107	114
	미 국	103	112	103	107	101	119	103	102
지역별	중 국	97	115	98	106	96	117	95	105
	일 본	95	103	94	102	93	115	88	92
	유 로 존	100	115	105	109	106	119	102	105
	동 남 아	92	106	97	99	99	110	99	108
	중 남 미	112	106	127	100	127	122	112	111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중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기 대비 개선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일본, 중국, 미국에서 크게 상승하여 해당지역에서 수출물량 확대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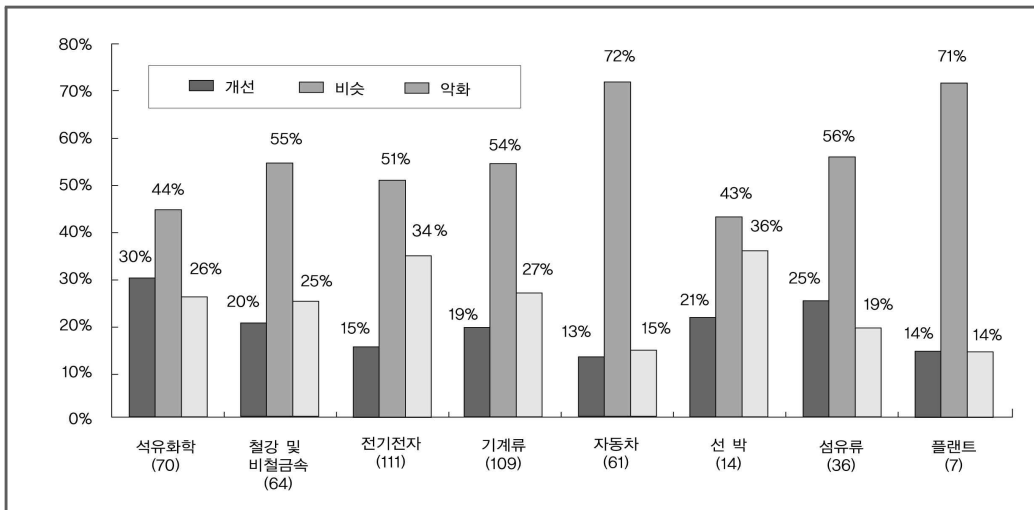
Ⅱ 2012년 1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악화 원인과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1분기 중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개선된 기업보다 다수

-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 악화되었다는 기업은 25.6%로 나타남.
 - 전기(개선 15.1%, 악화 29.3%)보다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다소 축소됨.
 - 55.4%는 수출업황이 2011년 4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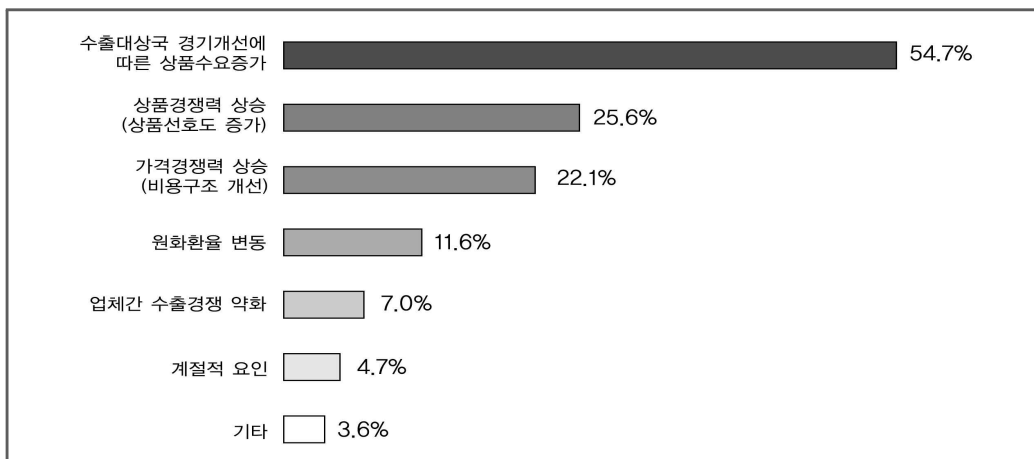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 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개선된 업체가 26.9%로 악화된 업체(20.8%)보다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27.6%가 악화되어 개선된 업체(15.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산업분류별로는 섬유와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을 제외하고는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개선된 기업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황이 개선된 기업은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
- 수출업황 개선기업 중 55%는 업황개선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로 답하고 있으나, 전기(59%)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이 크지 않았음을 보임.
 - 다음으로 상품경쟁력 상승과 가격경쟁력 상승이 각각 26%, 22%를 차지
 - 산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업체의 경우 상품경쟁력 상승을 업황개선의 요인으로 각각 38%, 33%의 기업이 답함.
 - 섬유업체의 경우 44%의 기업이 가격경쟁력 상승을 업황개선의 요인으로 답해 해당산업의 비용구조 개선이 있었음을 나타냄.
 - 전기·전자 및 기계류 산업의 경우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업황개선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해당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업황개선 기업 수는 86개임.



<표 5>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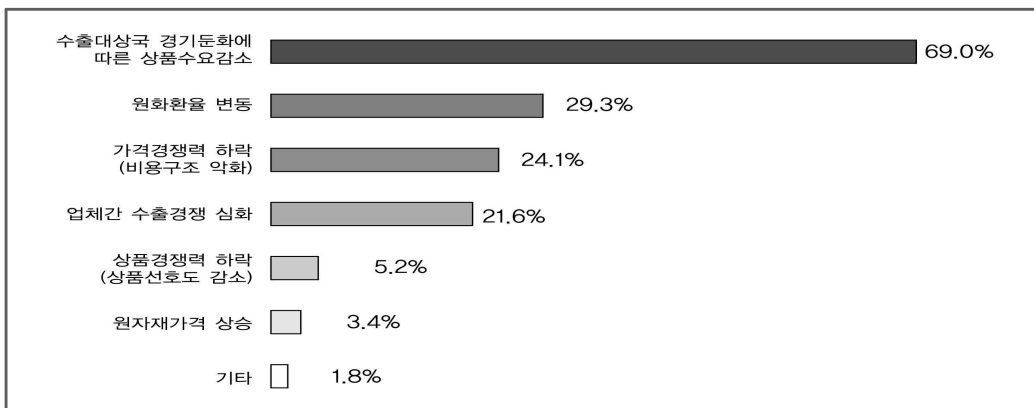
구 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 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계절적 요인
규모별	대 기 업	14.3%	28.6%	51.4%	8.6%	14.3%	2.9%
	중 소 기 업	33.3%	17.6%	56.9%	5.9%	9.8%	5.9%
업 종 별	석 유 화 학	19.0%	42.9%	38.1%	4.8%	19.0%	9.5%
	철강 및 비철금속	15.4%	15.4%	46.2%	0.0%	7.7%	0.0%
	전 기 · 전 자	23.5%	5.9%	64.7%	17.6%	17.6%	0.0%
	기 계 류	28.6%	9.5%	61.9%	0.0%	9.5%	4.8%
	자동차(부품 포함)	37.5%	37.5%	37.5%	0.0%	25.0%	0.0%
	조 선	33.3%	33.3%	33.3%	0.0%	0.0%	0.0%
	섬 유	22.2%	44.4%	55.6%	11.1%	22.2%	11.1%
	플 랜 트	0.0%	0.0%	100.0%	0.0%	0.0%	0.0%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

○ 수출업황 악화기업 중 69%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84%)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2011년 4분기보다는 회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3>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주: 업황악화 기업 수는 116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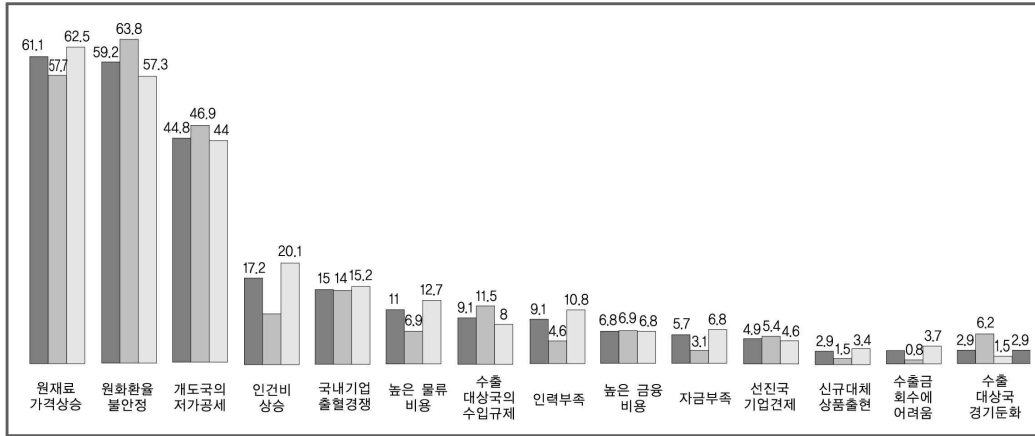
<표 6>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규모별	대 기 업	3.7%	22.2%	74.1%	18.5%	29.6%	3.7%
	중 소 기 업	5.6%	24.7%	67.4%	22.5%	29.2%	3.4%
업종별	석 유 화 학	5.6%	33.3%	50.0%	16.7%	33.3%	11.1%
	철강 및 비철금속	0.0%	37.5%	68.8%	31.3%	18.8%	0.0%
	전 기 · 전 자	2.6%	28.9%	71.1%	26.3%	23.7%	0.0%
	기 계 류	10.3%	10.3%	75.9%	10.3%	34.5%	0.0%
	자동차(부품 포함)	0.0%	22.2%	55.6%	11.1%	44.4%	22.2%
	조 선	0.0%	20.0%	100.0%	20.0%	40.0%	0.0%
	섬 유	28.6%	0.0%	42.9%	42.9%	14.3%	0.0%
	플 랜 트	0.0%	0.0%	100.0%	100.0%	0.0%	0.0%

- 환율변동이 29%, 가격경쟁력 하락은 24%, 업체간 경쟁심화가 22%를 차지
- 산업별로는 철강 및 비철금속, 석유화학 업체의 경우 수출대상국의 경기악화 이외에도 30% 이상이 가격 경쟁력 하락을 업황악화의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 자동차, 조선, 기계류 업체들은 30% 이상이 원화환율 변동을 업황악화 요인으로 답해 환율변동에 대한 부담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환율 불안정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61%), 원화환율 불안정(59%),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5%)를 꼽고 있음.
 -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 20%, 국내기업간 경쟁이 1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조선산업의 경우 64%의 기업이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의 경우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그림 4> 2012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 자동차, 철강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조선산업의 경우 국내업체간 경쟁 심화, 자금사정 악화도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표 7> 2012년 1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구분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52.9%	60.9%	60.4%	60.6%	67.2%	50.0%	55.6%	57.1%
원재료 가격 상승	65.7%	57.8%	59.5%	62.4%	63.9%	57.1%	80.6%	42.9%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42.9%	57.8%	46.8%	45.0%	27.9%	64.3%	47.2%	71.4%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14.3%	25.0%	10.8%	14.7%	9.8%	35.7%	11.1%	28.6%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고관세)	10.0%	7.8%	9.0%	10.1%	4.9%	0.0%	11.1%	14.3%
선진국기업의 견제	7.1%	3.1%	8.1%	3.7%	1.6%	7.1%	2.8%	0.0%
신규 대체상품 출현	5.7%	0.0%	8.1%	0.0%	0.0%	0.0%	0.0%	0.0%
인력부족	11.4%	6.3%	6.3%	11.0%	11.5%	0.0%	16.7%	14.3%
인건비 상승	15.7%	7.8%	19.8%	17.4%	19.7%	7.1%	13.9%	14.3%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1.4%	3.1%	4.5%	1.8%	3.3%	7.1%	2.8%	0.0%
높은 물류비용	7.1%	9.4%	11.7%	10.1%	13.1%	7.1%	19.4%	0.0%
높은 금융비용	7.1%	6.3%	6.3%	2.8%	9.8%	7.1%	5.6%	28.6%
자금부족	2.9%	3.1%	8.1%	8.3%	0.0%	21.4%	2.8%	14.3%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2.9%	4.7%	1.8%	4.6%	4.9%	7.1%	0.0%	0.0%